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종합병원착공을 현지에서 선포하시고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시였다

(평양 2020년 3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인민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한 일을 국가적인 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에 따라 조선로동당창건 75돛을 맞으며 수도 평양에 현대적인 종합병원이 일떠서게 된다.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이 3월 17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건설되는 평양종합병원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의 려정을 즐기치게 이어가는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이다.

착공식장은 인민보건의 비약적발전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며 인민들에게 가장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당중앙의 의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갈 건설자들의 열의로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건설자들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진활로를 열어나가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착공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동지가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김재룡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리일환동지, 박태성동지와 군대와 사회의 건설지휘성원들, 건설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 7기 제 5차전원회의에서 평양시에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토의결정하고 당창건 75돛을 맞이하는 올해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건설로 규정한데 기초하여 공사를 최단기간내에 완공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각방으로 추진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보건의 혜택속에서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무병무탈하고 문명생활을 누리는것이 우리 당의 가장 큰 기쁨으로, 힘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보건부문을 추켜세우는것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정치적문제로, 조건과 환경이 어떠한데 국가적으로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할 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건설을 통하여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일관시키며 건설과정에 창조되는 결사관철의 정신, 건설속도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 과급되게 하려는 당의 의도를 천명하시고 병원건설을 당창건 75돛까지 완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귀중한 우리 인민을 위한 오늘의 영광스럽고 보람찬 건설투쟁에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인민을 위한 병원을 보란듯이, 세상이 부러워하게 훌륭하게 일떠세우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한평생이 어린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새로운 주체 100년대와 더불어 더욱 뜨겁게 펼쳐가시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더치는 격정의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을 기념하여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시고 직접 발파단추를 누르시였다.

순간 평양종합병원착공을 알리는 첫 발파의 폭음이 장쾌하게 울려 퍼졌다.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화폭이 펼쳐진 건설장은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위해 최상급의 종합병원건설을 발기하시고 수도의 중심부에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병원착공도 선포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르는 참가자들의 열화같은 흠모심과 무한한 걱정으로 용암마냥 끓어번지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당창건 75 돛을 맞으며 평양종합병원을 우리 당의 위대한 인민관이 완벽하게 구현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우고 충성의 보고를 올릴 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공사에 전격진입하였다.